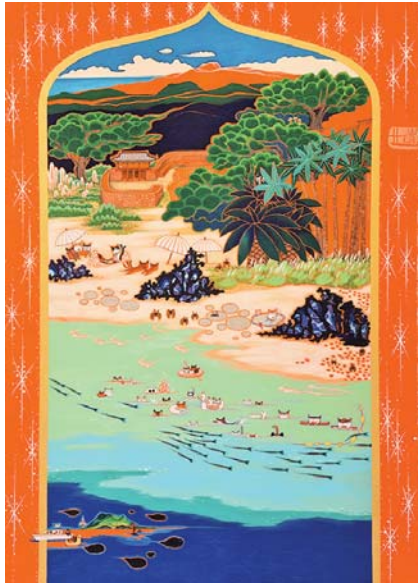




이선희의 '여름엔 바다지! 명월성과 협재해수욕장' 제주갤러리 제공

경계 없는 유목민 삶처럼 제주가 이끄는 존재 방식 제주갤러리 이선희 개인전

제주를 배경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존재 방식을 풀어낸 전시가 있다. 제주도과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의 2026 제주갤러리 공모 선정 사업으로 진행 중인 이선희 작가의 12번째 개인전 '노마디즘'이다.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제주갤러리.

'노마디즘'이란 제목처럼 대학 졸업 후 작업을 중단했던 이 작가는 다시 붓을 잡으며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겼고 지금은 제주에서 살고 있다. 작업 방식 역시 회화, 자수 기법, 증강현실(AR) 활용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

그는 제주가 저마다 다른 속도와 표정으로 생활을 이어 가고 있는 이들이 공존하는 섬이라고 했다. 작가는 연꽃잎 형태의 프레임과 형광 주황색으로 그린 제주의 풍경과 문화, 사물을 표현했다. 화면을 둘러싼 연꽃잎 프레임은 경계 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은유하듯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문으로 작동한다. 주황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제주 해녀들의 데약, 과일에서 익어가는 감귤의 색이다.

전시장엔 제주 역사와 기억을 품은 회화 작품도 걸렸다. 사라져 가는 자연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상 공간에서 펼쳐는 AR 작품 '잊혀진 숲'도 볼 수 있다. 전선희기자

주말, 여기 제주 사찰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마음의 잔 비우고 채우며 치유 명상

여름 휴가철·방학 기간
관음사 어린이·청년 명상
약천사 황금노을 요트 체험
자연에서 몸과 마음 회복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산사에서 진행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제주 등 전국 50여 개 사찰에서 7~8월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는 사찰별 특색과 지역별 자연환경을 살려 60여 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단순한 여행을 넘어 자연 안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이끈다. 피서·레저형, 어린이·청소년·가족 체험형, 청춘 힐링형, 명상·수행형, 지역·이색 문화 체험형을 통해 어린이, 가족, 청년, 성인 참가자 등 다양한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도움말로 제



약천사 황금노을 요트 체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주 지역 사찰에서 준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제주 관음사에서는 '마음의 잔, 비우고 채우기(치유명상)'를 이어간다. '1박 2일 관음사 어린이 템플스테이'(8월 1~2일, 8월 8~9일, 8월 14~17일), '1박 2일 관음사 청년 템플스테이'(8월 22~23일)로 나눠 운영된다.

약천사에서는 '지역·이색 문화 체험형'으로 '무념무상 라면'을 준비했다. 운영 기간은 7~8월 매주 주말. 제주 바다를 품은 피서·레저형

프로그램도 잇따른다. 관음사의 '블루 마인드 바다 명상'(7월 24~26일, 8월 28~30일, 9월 4~6일, 9월 11~13일), 약천사의 '황금노을 요트 체험'(7~8월 매주 주말), 금룡사의 '사찰에서 배우고, 감녕 바다에서 웃다'(7월 4~5일) 등이다.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은 템플스테이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템플스테이 예약 누리집 이용.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자연이 전하는 어떤 날의 기억·위로

김애란 개인전 '샤랄랄라'
이연정 개인전 '오름...'
장영 개인전 '... 플레닛'

저마다 다른 시선으로 이 땅의 자연을 바라본 전시가 잇따른다. 그것은 어떤 날의 기억을 불러낸다. 때로는 우리의 어깨를 다독인다.

김애란 개인전 '샤랄랄라'는 바람을 쫓아 바다로 향한 어느 날의 기억에서 시작된다. 맑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봤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말은 즐거움과 기쁨이 담긴 '샤랄랄라'였다. 약 20점의 신작들엔 파도치는 바다 위에 둥게몽게 구름이 피어오른다. 작가는 "폭풍이 몰아쳐어도 빛나는 구름이 다가와 편안함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담소 창작 스튜디오 갤러리.

이연정 개인전 '오름, 기억의 지층'은 절제된 구성과 여백의 회화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제주 사람들에게 익숙한 오름이 등장하지만 거기엔 시간과



김애란의 '샤랄랄라'.

작가 제공

감정이 축적되어 있다. 실제 풍경과 닮은 듯 다른 오름들은 각자의 마음에 담아둔 장소를 떠올리게 만든다. 갤러리 측은 전시장 자체가 하나의 풍경이 되도록 공간을 꾸몄다. 이달 5일까지 제주시 갤러리예플.

장영 개인전 '아우어 블루 플레닛(OUR BLUE PLANET)'은 푸른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과 자연을 비춘다. 작가는 페그몰을 자르고, 연결하고, 겹치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 반복적인 페그몰 작업은 작가에게 몰입과 명상의 시간이었다. 푸른색을 품은 회화와 설치 작품을 내 건다.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돌담갤러리.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머물며 흐르는 것들=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와 연결의 과정을 조명하는 전시다. 김일지·원지영·윤여름·주원영·황조룡 작가가 참여해 서로 다른 매체와 표현 방식으로 존재가 타자와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순간을 탐구한다. 오는 6~17일 예술공간 둠근.

▷숨쉬고, 번지고, 다시 태어나는 우리들의 작은 생태계=예술공간산양의 입주 작가 3명(고경화·김시훈·양희연)이 지난 6월 한 달간 자정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과 예술로 소통한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자연과의 연결 감각을 표현하거나 버려지는 페트병 등을 활용해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담아냈다.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예술공간산양 전시실.

▷소망기념관 주말 원데이클래스

'하루교실'=전작(도장 새기기), 티볼랜드(나만의 차(茶) 취향 알아보기), 서예 일일 체험, 특별전 연계 반려식물 키우기, 작가에게 직접 배우는 한국화 체험이 준비됐다. 운영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8회. 참가 신청은 소망기념관 누리집 공지사항참고.

▷깊어가는 이야기=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연 예술 단체바리나모의 신작, 몸과 몸, 자연과 몸이 서로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움직임과 춤, 언어와 소리, 음악이 하나의 관계를 이루며,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쉽게 인식하지 못했던 감각과 풍경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4일 오후 5시 서귀포시 성산읍 스튜디오 무발(삼달리 1375). 유료.

알록달록 마음의 색깔 찾는 예술 여행

제주현대미술관 기획전
'색과 감정' 체험형 전시
작품 감상 뒤 연계 활동

색을 매개로 치유의 예술 여행을 떠나 보자. 제주시 환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들어선 제주도립제주현대미술관이 '색과 감정'을 주제로 어린이와 어른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전시를 마련했다. 이달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어지는 '마음이 알록달록' 기획전이다.

이 전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색채를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심리적 언어로 바

라보는 데서 출발한다. 색이 지닌 고유한 파장과 에너지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뇌 신경계를 자극해 심리적 안정과 생체 리듬 회복을 돕는다는 점에 눈길을 뒀다.

전시는 5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내 마음은 어떤 색깔까?'를 시작으로 '파랑-하늘처럼, 바다처럼', '초록-마음이 자라는 곳', '노랑-행복한 생각', '빨강-사랑의 기술'이 펼쳐진다.

관람객들은 제주현대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주제별 작품을 감상하고 연계 활동을 벌인다. 전시 작품은 강요배의 '구름이 하늘에다', 고보형의 '우도가 보이는 풍경', 김병국의 '바다보다', 이미



고보형의 '우도가 보이는 풍경'.

제주현대미술관 제공

선의 '치유의 정원', 박광진의 '자연의 소리', 고민철의 '환희', 변경수의 '달콤한 뽕뽕이' 등이다. 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본 뒤 '내 마음 카드 만들기'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까지 체험 활동에 나서며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으로 꾸민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현대미술관 누리집참고. 전선희기자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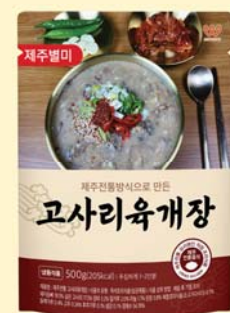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북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